



여름철 물놀이 귀·코 건강관리

귀, 물보다 모래가 더 위험... 염증 유발

“여름철 물놀이 귀, 코가 위험하다.”

여름철 물놀이시 건강엔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부주의하면 귀 질환인 급성 외이도염 등으로 고생하기 쉽고, 특히 자녀에게 귀 질환 증이염 증세가 있다면 더욱 예방에 힘써야 한다.

귀 질환 외에 물놀이 후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 콧물이 심해지는 등 비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물놀이 전후의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중요하다.

◇중이염 환자 주의=한바탕 물놀이 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기 쉽다. 하지만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건강한 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귀 안쪽에 위치한 고막이 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이염 증세가 있거나 과거 중이염 이력이 있는 경우, 혹은 외이도 벽에 상처가 있거나 귀 속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갔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이염 증세나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 된다. 귀는 인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귀가 청결하지 않을 경우 귀 안의 귀지나 염증으로 인해 귀 속 땀샘이나 피지선이 막혀 배출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세균감염이 이차적으로 생기고 외이도염이나 고막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귀지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 귀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귀지와 섞여 완전히 귀를 막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보다 더 위험한 건 모래=물놀이 시 귀를 위협하는 것은 물 뿐만이 아니다. 바닷가에서 파도에 의해 물에 모래가 섞여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래는 물처럼 쉽게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귀속에 있는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면봉 등으로 귀 속을 닦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모래의 작은 알갱이들이 부딪혀 귀 속 외이에 상처를 내게 되고, 상처가 생기면 염증을 유발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물놀이 도중 귀속에 물이 흘러들어갔을 경우 인위적으로 물을 빼려



박은호 베스타이비인후과 원장이 물놀이를 다녀온 후, 귀 속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무조건 면봉으로 닦아선 안돼... 통증·고름 생기면 외이도염 의심

염증성 비염환자, 장시간 물놀이 증상 악화 심하면 축농증 발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며 선풍기나 헤어 드라이어의 찬바람을 이용해 말려주는 것이 좋다. 그 후 귀 입구의 물은 면봉 등으로 가볍게 닦아주는 것은 괜찮지만 귀 깊숙한 곳을 후벼거나 귀 속을 비누물 등으로 세척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중이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물속에서 오랫동안 잠수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하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물 또는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오염된 물이나 모래가 들어갔을 경우 손이나 면봉으로 절대 후벼끼 말고 바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편소 귀지를 파는 습관대신 식초한 두 방울을 섞은 증류수를 면봉에 적셔서 외이도 입구에 가볍게 발라주면 피부가 약 산성으로 유지될 때 세균 감염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므로 외이도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물놀이를 다녀온 후 귀속에 딱딱함이 지속된다거나 가려움증, 통증, 고름 등이 생길 경우 외이도염의 심피드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염환자는 물놀이를 가급적 짧게=건강한 사람도 물놀이를 하고 나면 코가 막히고 재채기와 콧물이 심해지는 등 비염이 생길 수 있다. 만일 원래 비염이 있던 사람이라면 물놀이 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염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한 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의 물놀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급성 염증성 비염이 있는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 혈관운동성 비염이나 호산구성 비염 등 코의 점막이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은 수영장의 강한 소독약이나 바다의 오염물질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물놀이를 하되, 장시간 동안 물놀이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놀더라도 한 시간 이내가 적당하다.

물속과 물 밖에서의 체온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코 점막이 예민해 콧물이나 재채기가 심해지면 물놀이 후 생리 식염수로 콧속을 세척해 주면 증상이 완화된다.

물놀이 후 비염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오인해 방치할 경우, 축농증으로 발전하기 쉽다. 만일 감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콧물색이 누렇게 변하고, 목으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노란 가래가 나오거나 코막힘, 콧물과 함께 두통, 기침, 미열 등이 느껴지면 축농증을 의심해야 하며 전문의와 상의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베스타이비인후과 박은호 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대병원 '365외상팀' 중증환자 생존율 높여

신속 진료·처치... 다발성 외상환자 83% 급증·사망률 6% 감소

최근 목포시 한 건물 3층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정모(50·목포시 유달동)씨가 떨어졌다. 가족들은 급히 광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료진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권했고 곧바로 조대병원(병원장 민영돈)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조산대학교 병원 '365응급외상팀'은 진찰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반골 골절·요추골절·다발성 늑골골절 그리고 간열상과 활기증 등을 발견했다. 정씨는 내원한 지 1시간만에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드라마에서 보던 사례가 아니다. 조산대병원 365응급외상팀의 실제 사례다. 최근 중증 외상환자를 다룬 MBC드라마 '골든타임'이 인기를 끌면서 외상전문팀이 구성돼 있는 365응급외상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65응급외상팀은 다발성 외상 환자를 치료하고 중증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진료 및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각 분야 전문의의 신속하고 효율적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15개 진료과 전문의 위주로 지난해 5월 꾸려진 '365응급외상팀'은 다발성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1차적으



365응급외상팀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다.

로 진료 및 검사를 한 후, 상태에 따라 대기 중인 각과의 의료진과 협진을 해 신속하게 수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365응급외상팀이 구성된 이후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외상 및 다발성 외상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0년7월~2011년6월까지 1년간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에 들어온 외상 환자 수는 9045명이었지만 2011년7월~2012년6월까지 7%가 늘어난 9713명이었다. 외상 환자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지만, 그 중 중증 외상환자 수는 246명에서 401명으로 63%가 늘었으며, 다발성 외상환자는 755명에서 1385명으로 무

려 83%의 환자가 급증했다. 특히 외상 환자 사망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6% 감소했다.

365응급외상팀 이석기 흉부외과 교수는 “외상 환자 생존율은 신속한 진료 및 처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24시간, 365일 외상 환자 진료를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05년 7월 기존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외상)로 지정됐으며, 2010년에는 원거리 환자나 자연재해·대형사고로 인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헬기장을 구축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대병원, 예약시스템 개편·고객소통 강화

진료의·날짜·시간 등 환자가 직접 선택... 페이스북 오픈도

조산대병원(병원장 민영돈)이 모바일(mobile)과 웹(web)을 이용한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강화하고 병원 페이스북(facebook)을 오픈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조산대병원은 최근 진료예약시스템을 개편했다. 기존의 모바일 홈페이지(https://hosp.chosun.ac.kr/m) 예약 시스템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병원 고객지원센터로 전화 연결돼 예약하는 시스템이었다.

웹 홈페이지의 경우 예약 메뉴에 원하는 진료과와 날짜를 적어놓으면 병원 담당자가 고객에게 전화를 해 예약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예약 시스템은 모바일과 웹 홈페이지 모두 고객이 원하는 진료과와 교수, 날짜 시간 등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예약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때문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한 시간에 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산대병원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ChosunUniversityHospital)도 오픈했다. 조산대병원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0년 11월에 개정한 트위터(http://twitter.com/cuhpr)에 이

러 페이스북을 최근 열었다. 페이스북에서는 다양한 의료정보는 물론 각 의료진들이 전하는 의학 상식도 게재한다. 또 7월에는 조산대병원 네이버 블로그(blog)도 여는 등 인터넷 공간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영돈 병원장은 “불편했던 예약 시스템을 고객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대폭 수정했다”며 “소셜네트워킹(SNS)을 활용한 고객과의 접촉률을 더욱 늘려서 언제 어디서든 병원 소식을 물론 시민들이 쉽게 의학 상식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다와옥션 www.dawauction.co.kr
다외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요양시설용 건물 동구 대지197 건평507 법인이전환 9억
*요양시설 등 건물, 화순군 도곡 대지 302평 건평 565평 4억7천

수원지구 상가임대 분양
1층~7층 (20평~210평)
분할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역세권 상업지 토지급매
운천역 1분 코너
중심상업지 250평
최고위치!!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빌, 땅
상가 건물
매수 매도 대기중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물건(상가빌딩매매)
*사구 상부지구 상가빌딩 대지 180평 건평 873평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하동 홀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4~5층 각 130평
*6층 110평

대인동상업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